

中國의 地域間 都市不平等의 趨勢와 要因分析*

李 宗 哲**

논문 초록

이 논문은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를 이용하여 90년대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0년대 전반에는 지역간 도시 불평등이 악화되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전반에는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90년대 후반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과 보너스를 제외한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 및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 증가가 이전소득 등 여타 소득원들의 지역간 불평등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대부분은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 그리고 이전소득 등이 설명하고 이들 세 소득원의 기여도는 9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의 대부분이 국유경제단위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핵심은 국유부문에 있다.

핵심 주제어: 지역간 도시불평등, 소득구성요소별 불평등분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53

* 이 논문은 2001년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이 논문의 자료수집과 정리과정에서 도움을 준 Duke대 경제학과의 이재화 박사와 Duke대 Asian Collection의 Zhaohui Xue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심사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jc3253@cau.ac.kr

I. 서론

중국은 4개의 직할시, 5개 자치구 및 22개의 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31개의 성급단위의 규모와 인구는 한 국가와 맞먹을 정도로 크고 방대하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지역불평등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기존논의는 성간 GDP불평등(Chen and Fleisher, 1996; Denny, 1991; Du, 1996; Fleisher and Chen, 1997; Jian, Sachs and Warner, 1996; Lee, 1995; Lyons, 1991; Raiser, 1997; Tsui, 1991, 1996; Xiaobin, 1996; Yao and Melvyn, 2000; Yang, 1990; Zhang, Liu and Yao, 2001 등), 도시불평등(Aaberge and Li, 1997; Coady and Wang, 2000; Gustaffson and Li, 1997, 2001a, 2001b; Khan, Griffin, Riskin and Zhao, 1992; Khan and Riskin, 1998; Khan, Griffin and Riskin, 1999; Knight and Song, 1991; Knight, Li and Zhao, 2001, Xu and Zou, 2000 등), 농촌불평등(Chen and Ravallion, 1996; Cheng, 1996; Hare, 1994; Knight and Song, 1993; Morduch and Sicular, 1998a, b; Ravallion and Chen, 1998; Rozelle, 1994; Tsui, 1998a, b; 이종철, 2000 등), 도·농간 불평등(Xue and Liu, 1996; Yang, 1999; 이종철, 2001 등)에 대한 연구로 대별된다.

중국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기존연구 중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성간 GDP불평등, 농촌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지역격차 논의 과정에서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도시부문의 불평등이 도·농간 불평등이나 농촌불평등에 비해 그 정도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경제개혁이 도시부문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이 출현하면서 도시부문의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부문 불평등의 중요성 증가는 최근의 연구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다. 현 및 현금급시의 1인당 소득을 사용하여 전체 지역격차에 대한 농촌 및 도시불평등, 그리고 도·농간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를 최초로 분석한 Tsui(1993)에 따르면 전체 지역격차에 대한 도시 불평등의 기여도는 1982년의 경우 8%로 도·농간 불평등의 기여도(52%)나 농촌불평등의 기여도(40%)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Lee(2000)에 따르면 1994년의 경우 전체 지역격차에 대한 도·농간 불평등의 기여도는 26%로 감소한 반면 농촌불평등의 기여도는 53%로 증가하고 특히 도시 불평

등의 기여도는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0년대 초반에 비해 도시불평등의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도시불평등의 중요성은 성급자료를 사용할 경우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철, 2001). 따라서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를 확인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적 처방을 강구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안정속에 개혁·개방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존연구 중 이 논문은 Gustaffson and Li (1997, 2001a, 2001b), Khan, Griffin, Riskin and Zhao(1992), Khan and Riskin (1998), Khan, Griffin and Riskin(1999)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1988년과 1995년의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소득을 임금소득, 연금 및 퇴직후 재취업자 소득, 사영 및 개체기업 소득, 재산소득, 주택보조금, 사적 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통계국의 소득분류와 달리 도시가계의 소득원에 주택보조금과 사적 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를 포함하고 있다. 지니계수와 집중계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이들은 1988-95년 사이에 도시불평등은 증가하였고, 특히 1988년 6%에 불과 했던 전체불평등에 대한 사적 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의 기여도가 1995년 22%로 증가하여 임금소득 다음으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커진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Knight, Li and Zhao(2001)는 Khan, Griffin, Riskin and Zhao(1992), Khan and Riskin(1998) 및 Khan, Griffin and Riskin(1999)과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도시가계의 소득원에서 주택보조금과 사적 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를 제외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같이 주택시장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자의적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주택보조금과 사적 소유주택의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주택의 질과 상관없이 잘 사는 성의 소득이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들은 도시불평등에 대한 임금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기존연구에는 중국의 31개 성급단위 중 1988년 10개, 1995년 11개 성만이 포함되어 분석에 포함된 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임금소득이 소유제별로 구분되어 있지않아 소유제에 따른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임금소득 중 보너스에 대한 분석이

결여 되어 있다. 특히 이들 기존연구에서는 도시불평등의 요인이 연해지역과 내륙 지역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반면 국가통계국의 공식자료를 이용할 경우 티벳을 제외한 모든 성급단위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고, 소유제에 따른 임금소득 및 보너스의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국가통계국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도시부문의 지역간 불평등의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첫째, 1990-1999년의 省(級單位)別 도시가계의 연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정도와 추세를 알아본다. 또한 성별 도시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소득원(所得源)을 이용하여 소득원별 불평등의 정도와 추세를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처분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소득원별 불평등의 정도와 추세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둘째, 소득구성요소별 불평등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불평등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은 자료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3절에서는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를 중국전체, 연해지역, 내륙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1990년대 전반과 90년대 후반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4절은 결론으로 갈음한다.

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이 논문은 國家統計局 城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²⁾에 수록된 성(급단위)별 도시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그 소득원

- 1) 이 논문은 성급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도시불평등은 엄밀히 표현하면 성(급단위)간 도시불평등이다. 이하에서는 성급단위를 하나의 지역으로 생각해서 성(급단위)간 도시불평등을 지역간 도시불평등으로 표현한다.
- 2) 1988년 처음으로 출간된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는 1995년 이후 『中國物價及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統計年鑑』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00년 판의 명칭은 『中國價格及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統計年鑑』으로 수정되었다.

(所得源)을 이용하여 1990-99년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요인을 분석한다. 省別 도시가계의 연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과 각 소득원은 개별 성의 통계년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의 소득원 자료가 이용 가능한 최초의 연도가 성별로 상이하고 소득원의 분류도 성별로 상이하다. 또한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을 수록하지 않은 성급단위도 있다.

성별 통계년감에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수록된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이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995년과 99년의 경우 이 자료에는 도시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이 1. 국유경제단위 직공수입, 2. 집체경제단위 직공수입, 3.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 4.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³⁾ 5.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6. 퇴직후 재취업자 수입, 7. 기타 취업자 수입, 8. 기타 노동수입, 9. 재산수입, 10. 순이전수입, 11. 가정부업생산수입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재산수입은 이자, 배당금 및 임대료수입 등을 포함한다. 이전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순)이전수입⁴⁾은 연금, 가격보조 및 기타 이전수입을 포함한다. 1990년의 경우 이전수입 중 연금이 47%, 가격보조가 32%, 기타 이전수입이 21%를 차지했다. 그러나 1999년 들어 이전수입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없는 반면 연금의 비중은 대폭 늘고 가격보조는 대폭 감소하여 이전수입 중 연금의 비중이 77%로 증가한 반면 이전수입에서 차지하는 가격보조의 비중은 거의 0%에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고).

1990년의 경우에는 1995년과 99년에 포함된 소득원 중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과 가정부업생산수입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3) 1999년 자료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이 국유경제단위직공의 기타수입과 집체경제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으로 구분되어있다. 그러나 1990년과 1995년의 자료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이 국유단위 직공의 기타수입과 집체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1999년의 경우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의 기타수입 중 93%가 국유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이 국유단위 직공의 기타수입과 집체단위 직공의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면 국유단위 직공의 수입이 더욱 커질 것이다.

4) 가처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거의 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전소득에서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순이전수입을 그냥 이전수입으로 표기한다.

(표 1)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소득원과 비중(%)

소득원	1990	1995	1999
1. 국유경제단위 직공수입	57.1	60.7	53.0
1.1 임 금	46.4	51.5	46.4
1.2 보너스	10.7	9.2	6.6
2. 집체경제단위 직공수입	10.4	7.8	5.9
2.1 임 금	8.6	6.7	5.0
2.2 보너스	1.8	1.1	0.6
3. 기타 경제유형 직공수입	N. A.	1.6	3.7
4. 국유 및 집체단위직공 기타수입	6.3	5.4	3.9
5. 개체경영 노동자 수입	0.8	2.1	3.8
6. 퇴직후 재취업자 수입	1.4	1.0	1.0
7. 기타 취업자 수입	0.3	0.2	0.3
8. 기타 노동수입	1.3	2.3	3.3
9. 재산수입	1.0	2.1	2.2
10. 이전수입	21.5	16.8	21.0
10.1 연 금	10.2	12.4	16.2
10.2 가격보조	6.8	0.1	0.0
10.3 기타 이전수입	4.5	4.3	4.8
11. 가정부업생산 수입	N. A.	0.1	0.1
Total	100.0	100.0	100.0

자료: 國家統計局城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에서 계산.

주: 표의 수치는 반올림 한 수치로 합계가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소득원 중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과 가정부업생산수입을 제외한다.⁵⁾ 1999년의 경

- 5)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이 분석에서 제외되면 경제개혁이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국유부문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이 과소평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을 쓸 당초의 의도도 1995-99년의 자료로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최근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여 비국유부문의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99년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의 성간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체 소득에 대한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의 비중이 미미하여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이 가처분소득의 1.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1990년의 경우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음절에서 보듯이 1990-95년의 도시불평등이 악화된 반면 1995-99년의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990년부터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전후반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심사자 중 한분의 지적대로 90년대 중반이후 기타경제유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기타경제유형의 도시가계의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역할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기타경제유형의 도시가계의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95년과 2000년의 도시가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이종철, 2002b). 분석결과 기타경제유형으로부터의 수입이 포함되었는데도 지역간 도시불평등은 여전히 90년대 중반이후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원 중 기타경제유형을 포함시킬 경우 국유경제단위 직공수입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의 기여도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과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기타경제단위는 향후 지역간 도시불평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 가치분소득 중 기타경제유형 직공수입과 가정부업생산수입의 비중은 각각 3.7%와 0.1%로 그 비중이 미미하다. 그리고 퇴직후 재취업자 수입과 기타 취업자 수입 및 기타 노동수입을 합하여 기타수입으로 분류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도시불평 등에 대한 소유제별 임금과 보너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과 보너스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소득원은 1. 국유경제단위 임금, 2. 집체경제단위 임금, 3.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4. 집체경제단위 보너스, 5.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 6.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7. 기타수입, 8. 재산수입, 9. 이전수입 등이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이용된 가치분소득과 그 소득원은 성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도를 기준년도로 전환한 실질치이다. 1990년 및 95년의 자료가 없는 티벳과 1990년의 자료가 없는 해남성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1997년 직할시가 된 중경은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사천성에 포함한다.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성급단위는 28개이다. 28개의 성급단위는 11개의 연해지역 성과 17개의 내륙지역 성으로 구분된다.

2. 분석방법

불평등지수를 분해(decomposition)하여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는 총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소득 구성요소별 불평등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소득을 농업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나누어 각 소득원의 불평등이 총소득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Aaberge and Li(1997), Gustaffson and Li(1997, 2001a, 2001b), Fei *et al.* (1978), Fields(1979), Khan, Griffin, Riskin and Zhao(1992), Khan and Riskin(1998) Khan, Griffin and Riskin(1999), Knight, Li and Zhao(2001), Pyatt *et al.* (1980), Shorrocks(1982, 1983) 등이 이 범주의 연구에 속한다. 두 번째 범주는 전체 인구를 성별, 연령별, 인종별, 도·농별 등의 하부그룹(population subgroup)으로 구분하여 전체불평등에서 차지하는 하부그룹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는 Bourguignon(1979), Cowell(1980), Shorrocks(1980, 1984)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소득구성요소별 불평등분해(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도시불평등의 요인을 분석한 Aaberge and Li(1997), Gustaffson and Li(1997, 2001a, 2001b), Khan, Griffin, Riskin and Zhao(1992), Khan and Riskin(1998) Khan, Griffin and Riskin(1999), Knight, Li and Zhao(2001) 등의 분석방법을 따른다.

이들에 따르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 는

$$G = \sum_k \pi_k = \sum_k u_k C_k \quad (1)$$

로 분해된다.⁶⁾ 여기서 u_k 는 소득원 k 의 총소득에 대한 비중을 나타낸다. C_k 는 소득원 k 의 집중계수(concentration ratio)이다. 집중계수는 1인당 총소득의 순서(즉, $Y_1 \leq Y_2 \leq \dots \leq Y_n$)에 따라 각 소득원을 나열한 후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의 계산방식과 똑같이 계산한 것이다. π_k 는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 k 의 기여도로 소득원 k 의 전체불평등에 대한 기여도의 비중은 π_k/G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보다 소득원 k 의 집중계수가 크면($G < C_k$) 소득원 k 가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disequalizing effect)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지니계수보다 소득원 k 의 집중계수가 작으면($G > C_k$) 소득원 k 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equalizing effect)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horrocks (1982, 1983)에 의해 분해방법의 비유일성(nonuniqueness)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unique) 분해방법이라고 주장되는

$$s_k = cov(Y_k, Y) / var(Y) \quad (2)$$

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한다.⁷⁾ 여기서 s_k 는 소득원 k 의

6) 지니계수는 $G = \frac{2}{n^2 \mu} \sum_{i=1}^n (i - \frac{n+1}{2}) Y_i$ (단, $Y_1 \leq Y_2 \leq \dots \leq Y_n$)로 계산된다. 여기서 Y_i 는 i 번째 소득단위의 1인당 소득수준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함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y Index) 중 $c=0$ 인 경우(lower Theil지수)와 $c=1$ 인 경우(upper Theil지수) 및 1인당 소득에 대한 로그(log)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의 계산공식은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참고.

전체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낸다. 식 (2)는 분석에 사용된 불평등지수와 무관하다. 따라서 각 소득원의 전체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도 불평등척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III. 분석결과

1.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

(표 2)는 지니계수, 타일지수, 로그의 표준편차 등으로 계산한 1990-99년의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1990-99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1990-95)과 후반(1995-99)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1990년대 전반의 경우 우선 전체적으로 모든 불평등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90년대 전반에는 두 지역 모두 불평등이 악화되었으나 불평등의 정도는 내륙지역보다 연해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모두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리고 도시불평등의 정도는 여전히 연해지역에서

7) 식 (2)가 도출되기위해 부과된 조건은 Shorrocks(1982)의 가정 5b 및 가정 6과 정리 3 참조. 식 (3)을 실제적용한 예로는 Shorrocks(1983), Tsui(1998b), Lee(2000) 등이 있다.

8) 1995-99년의 경우 불평등지수의 감소 정도가 미미하여 9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도시불평등이 감소했는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1인당 가처분소득 성장률과 초기년도(initial year)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Barro and Sala-i-Martin(1995)에서 논의되는 수렴화(convergence)현상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1990-95년의 전체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수렴화(divergence)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연해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수렴화 현상이 나타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초기년도 소득의 계수가 마이너스 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99년의 경우 전체지역, 연해지역, 그리고 내륙지역의 초기 소득의 회귀계수는 모두 마이너스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와 불평등지수 등을 종합해 볼 때 90년대 전반은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은 큰 변화가 없으므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0년대 전반과 후반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90년대 전반의 경우 연해지역은 연평균 7.4%, 내륙지역은 6.3%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년대 후반에는 연해지역은 연평균 5.8%, 내륙지역은 6.2%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90년대 후반 들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연해지역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내륙지역의 실질소득 증가율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표 2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내륙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전반과 90년대 후반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요인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표 2)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

불평등 지수	1990			1995			1999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지니계수	9.5	8.0	4.2	12.4	11.5	6.1	11.9	10.7	5.9
타일지수(c=0)	1.5	1.1	0.3	2.5	2.1	0.6	2.4	2.0	0.5
타일지수(c=1)	1.6	1.1	0.3	2.7	2.2	0.6	2.5	2.0	0.5
로그의 표준편차	17.1	15.1	7.9	22.0	21.2	11.1	21.4	20.6	10.6

자료: 표 1참고

주: 1) 표의 수치는 각 지수에 100을 곱한 수치임.

2)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neralized Entrophy Index) 중 타일지수(c=0, lower Theil Index) 및 타일지수(c=1, upper Theil index)의 계산공식은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참고

2.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요인 분석

1) 소득원의 비중변화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하기에 전에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의 비중과 집중계수를 살펴보자. 방법론에서 보았듯이 전체 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는 전체소득에 대한 각 소득원의 비중과 집중계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표 3)은 전체소득에 대한 각 소득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국유경제단위의 임금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이 전소득,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집체경제단위 임금,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근로자의 기타소득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 그리고 이전소득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은 90년 79%, 95년 80%, 99년 80%로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이들 세 소득원이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근로자 기타수입의 대부분이 국

(표 3)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원의 비중(%)

소득원	1990			1995			1999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Y_1	48.5	42.4	53.7	53.3	46.8	59.1	52.8	47.5	57.6
Y_2	8.4	9.2	7.7	6.1	7.0	5.4	4.9	5.5	4.4
Y_3	10.2	11.9	8.8	9.2	11.9	6.7	6.4	8.4	4.6
Y_4	1.7	2.5	0.9	1.0	1.5	0.5	0.5	0.8	0.2
Y_5	6.2	7.0	5.5	5.3	5.4	5.3	4.0	3.7	4.2
Y_6	1.2	1.1	1.3	2.0	2.4	1.7	3.8	3.9	3.7
Y_7	2.9	3.4	2.4	3.7	4.4	3.1	4.6	5.5	3.8
Y_8	0.9	1.2	0.8	2.0	2.5	1.6	2.2	2.4	2.0
Y_9	20.1	21.4	18.9	17.4	18.2	16.6	20.8	22.3	19.5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1 참고.

주: 1) Y_1: 국유경제단위 임금, Y_2: 집체경제단위 임금, Y_3: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Y_4: 집체경제단위 보너스, Y_5: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 Y_6: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Y_7: 기타수입, Y_8: 재산수입, Y_9: 이전수입을 나타냄.

2) 표의 수치는 반올림 한 수치로 합계가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유경제단위의 기타수입임을 감안하고⁹⁾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은 대부분 국유경제단위 퇴직자에게 지불되는 것을 감안하면¹⁰⁾ 중국 도시가계 가처분소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득원은 국유부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의 약 1/2을 차지하여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유경제단위의 임금소득은 연해지역보다 내륙지역에서 그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경제단위 임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원의 비중은 연해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소득원을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소득, 이전소득, 개체기업 종사자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원의 비중변화를 살펴 보자. 우선 1990-95년 및 1995-99년 사이에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소득 중 국유경제단위 임금을 제외한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집체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기타수입 등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모두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보너스의 경우 예상과 달리 연해 및

9) 주 2) 참고.

10) 국유단위 퇴직자에게 지불되는 연금은 90년 전체연금의 81%, 95년 84%, 99년 8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철, 2002a).

내륙지역 모두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Knight *et al.* (2001)이 지적한 대로 1993년 까지는 보너스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1994년의 임금개혁으로 보너스의 일부가 기본임금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국유경제단위 임금은 1990-95년 사이에는 연해 및 내륙지역 모두에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연해지역에서는 국유경제단위 임금비중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경제단위의 임금소득 다음으로 비중이 큰 이전소득은 1990년 가처분소득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에는 가처분소득의 17%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99년 21%로 다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에서 보았듯이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의 경우 1990년대 전후반에 모두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0-95년 사이의 이전소득의 감소는 연금감소 때문이 아니라 가격보조가 거의 없어진데 기인한다. 국유경제단위와 집체경제단위 근로자의 기타소득은 전지역, 전기간에 걸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체기업 종사자 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는 전지역, 전기간에 걸쳐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부문의 경우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면에서 국유부문이 가장 중요하다. 국유부문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유경제단위 임금과 이전소득이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경우 내륙지역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연해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더 크다. 그리고 국유경제단위 임금은 90년대 초반에는 연해 및 내륙지역 모두에서 그 비중이 증가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연해지역에서는 국유경제단위 임금비중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90년대 전반에는 연해 및 내륙지역 모두에서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감소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전지역에서 다시 비중이 증가했다. 둘째, 개체기업 종사자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은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도 국유경제단위의 임금과 이전소득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도시부문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 및 보너스, 그리고 이전소득을 중심으

로 이들 소득원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을 분석한다.

2) 소득원별 집중계수

(표 4)는 각 소득원의 집중계수이다. 집중계수는 각 성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순서대로 각 소득원을 배열하여 지니계수 계산방식과 같이 계산한 것이다. 우선 집중계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90년대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90년대 후반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과 보너스를 제외한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후반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전반에 비해 악화되지 않은 것은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 및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 증가가 이전소득 등 여타 소득원들의 지역간 불평등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예상대로 연해 및 내륙지역 모두에서 임금보다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표 4) 각 소득원의 집중계수(%)

소득원	1990			1995			1999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Y_1	2.2	1.1	3.0	5.1	3.8	5.0	6.7	5.2	5.9
Y_2	12.1	4.6	0.7	13.8	-2.2	6.4	17.3	3.1	14.6
Y_3	20.0	12.6	10.7	32.4	24.9	16.3	36.0	24.8	25.7
Y_4	38.7	26.6	13.9	43.3	27.4	19.8	49.6	31.4	37.1
Y_5	15.0	2.0	7.1	17.9	19.4	14.0	17.4	15.2	23.6
Y_6	8.7	33.5	-0.1	25.2	33.3	0.5	12.8	17.4	2.0
Y_7	22.7	27.9	4.7	24.3	23.8	7.7	16.9	15.0	-3.7
Y_8	22.5	17.5	6.8	27.9	24.2	13.0	17.7	14.9	5.6
Y_9	14.4	15.5	4.8	14.7	16.6	2.5	12.4	14.8	-1.6
Gini	9.5	8.0	4.2	12.4	11.5	6.1	11.9	10.7	5.9

자료: 표 1 참고.

주: 1) Y_1: 국유경제단위 임금, Y_2: 집체경제단위 임금, Y_3: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Y_4: 집체경제단위 보너스, Y_5: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 Y_6: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Y_7: 기타수입, Y_8: 재산수입, Y_9: 이전수입을 나타냄.

2) Gini는 1인당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임. 여타 수치는 각 소득원의 집중계수(concentration ratio)임.

3) 표의 수치는 각 지수에 100을 곱한 수치임.

고 있다. 임금과 보너스 모두 국유경제단위 보다 집체경제단위의 지역간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임금보다는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이 더 크고 국유경제단위 보다는 집체경제단위 임금과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소득원의 지역간 불평등 정도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국유경제단위 임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원의 지역간 불평등이 연해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의 경우에도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 임금을 제외한 여타 소득원의 지역간 불평등은 연해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99년의 경우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 보너스, 기타 수입 등에서 내륙지역의 지역간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은 미미하지만 개체기업 종사자 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의 지역간 불평등은 90년 이후 줄곧 연해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중이 국유경제단위 임금 다음으로 큰 이전소득의 경우도 90년 이후 줄곧 연해지역의 지역간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와 각 소득원의 집중계수를 비교해볼 때 1990년의 경우 연해지역에서는 국유 및 집체기업의 임금소득과 국유 및 집체기업 근로자의 기타소득이 평등화역할(equalizing effect)을 한 반면 여타 소득원들은 불평등화역할(disequalizing effect)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지역에서는 국유 및 집체기업의 임금소득과 개체경영자 및 근로자 소득이 평등화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는 연해지역에서는 국유 및 집체기업의 임금소득이 평등화역할을 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국유기업 임금과 개체경영자 및 근로자 소득 및 이전소득이 평등화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연해지역에서는 국유 및 집체기업의 임금소득이 평등화역할을 한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개체경영자 및 근로자 소득, 기타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평등화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이후 연해지역의 경우 주로 국유 및 집체기업의 임금소득이 평등화역할을 한 반면 내륙지역의 경우 주로 이전소득의 평등화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소득원별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표 5)는 각 소득원의 전체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π_k/G)를 나타낸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니계수를 통한 전체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와 함께 Shorrocks(1982, 1983)에 의해 제기된 식 (2)으로 계산한 각 소득원의 전체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도 제시한다(부표 참고). (표 5)와 (부표)를 보면 두 분석결과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표 5)를 중심으로 한다.

(표 5)를 보면 전반적으로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와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와 이전소득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63%에 이르고 있다.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큰 이들 소득원의 기여도를 지역별로 보면 연해지역의 경우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66%, 내륙지역의 경우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82.3%를 이들 세 소득원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보다는 내륙지역에서 이들 세 소득원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 표를 보면 연해지역에서는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42%로 국유경제단위 임금(5.7%) 및 보너스(18.7%)의 기여도를 합

(표 5)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

소득원	1990			1995			1999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Y_1	11.1	5.7	38.4	21.9	15.4	48.3	30.0	23.1	56.3
Y_2	10.6	5.2	1.3	6.8	-1.3	5.7	7.1	1.6	10.6
Y_3	21.3	18.7	22.2	24.0	25.7	18.0	19.3	19.5	19.5
Y_4	6.8	8.2	3.2	3.5	3.6	1.7	2.1	2.3	1.5
Y_5	9.7	1.7	9.2	7.7	9.1	12.0	5.8	5.3	16.6
Y_6	1.1	4.7	0.0	4.1	7.0	0.1	4.1	6.3	1.2
Y_7	6.8	11.7	2.7	7.2	8.1	3.9	6.5	7.7	-2.3
Y_8	2.2	2.5	1.2	4.5	5.2	3.4	3.2	3.3	1.9
Y_9	30.4	41.5	21.7	20.5	26.2	6.9	21.8	30.8	-5.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1 참고

주: 1) Y_1: 국유경제단위 임금, Y_2: 집체경제단위 임금, Y_3: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Y_4: 집체경제단위 보너스, Y_5: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 Y_6: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Y_7: 기타수입, Y_8: 재산수입, Y_9: 이전수입을 나타냄.

2) 표의 수치는 반올림 한 수치로 합계가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총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

소득원	1990			1995			1999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전체	연해	내륙
Y_1	11.7	13.1	42.2	19.2	16.6	48.7	26.6	26.0	51.4
Y_2	9.2	4.0	0.1	6.3	1.4	4.7	6.5	2.5	10.4
Y_3	20.9	19.6	20.9	24.2	24.3	17.9	18.4	18.9	18.9
Y_4	7.4	8.6	2.8	3.8	4.1	1.7	2.2	2.4	1.3
Y_5	8.3	3.1	8.6	8.0	9.6	12.0	5.4	6.3	13.8
Y_6	1.8	4.2	-0.4	5.5	7.8	-0.2	5.4	8.0	1.1
Y_7	7.6	10.5	2.5	7.2	7.6	3.0	7.6	6.8	1.2
Y_8	2.3	2.3	1.0	4.8	5.2	3.2	3.4	4.4	0.6
Y_9	30.8	34.6	22.2	21.4	23.4	9.0	24.5	24.7	1.3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표 1 참고.

주: 1) Y_1: 국유경제단위 임금, Y_2: 집체경제단위 임금, Y_3: 국유경제단위 보너스, Y_4: 집체경제단위 보너스, Y_5: 국유 및 집체단위 직공 기타수입, Y_6: 개체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수입, Y_7: 기타수입, Y_8: 재산수입, Y_9: 이전수입을 나타냄.

2) 표의 수치는 반올림 한 수치로 합계가 정확히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친 24.4%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22%로 연해지역에 비해 훨씬 작은 반면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38.4%)는 연해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국유경제단위 임금과 보너스(22.2%)의 기여도가 60.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이 큰 반면 내륙지역의 경우에는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의 경우에는 9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의 역할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세 소득원의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90년 보다 증가한 66.4%에 이르고 있다. 연해지역의 경우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90년 42%에서 95년 26%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의 기여도는 90년 24.4%에서 95년 4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에도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90년 22%에서 95년 7%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유경제단위 임금과 보너스의 기여도는 90년보다 증가한 66.3%에 이르고 있다. 1999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95년에 비해 이전소득의 기여도에는 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는 95년 22%에서 99년 30%로 증가한 반면 국유경제단위 보너스의 기여도는 95년 24%에서 99년 1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세 소득원의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95년 보다 증가한 71%에 이르고 있다. 연해지역의 경우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95년보다 증가하여 99년 연해지역의 지역간 불평등의 약 1/3을 설명하고 있다.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는 9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국유경제단위 보너스의 기여도는 9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해지역의 경우 99년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의 기여도는 95년보다 약간 증가한 43%에 이르고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 이전소득의 기여도는 95년보다 더욱 감소하여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이전소득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유기업 임금 및 보너스의 기여도는 95년 보다 증가하여 이들 두 소득원의 기여도가 99년 내륙지역 도시불평등의 76%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는 99년 56.3%에 이르러 국유경제단위 임금이 내륙지역 도시불평등의 절반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대부분은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 그리고 이전소득 등이 설명하고 이들 세 소득원의 기여도는 9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소득의 대부분이 국유경제단위 퇴직자에게 지불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핵심은 국유부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연해지역의 경우 이전소득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내륙지역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가 연해지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 론

이 논문은 1990-99년의 중국의 성별 도시가계의 연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과 후반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90년대 전반의 경우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었으나 9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정도는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대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90년대 후반에는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과 보너스를 제외한 모든 소득원의 집중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0년대 후반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국유 및 집체경제단위의 임금 및 보너스의 지역간 불평등 증가가 이전소득 등 여타 소득원들의 지역간 불평등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대부분은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유경제단위 임금 및 보너스, 그리고 이전소득 등이 설명하고 이들 세 소득원의 기여도는 9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의 핵심은 국유부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해지역의 경우 이전소득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내륙지역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국유경제단위 임금의 기여도가 연해지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유부문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도시부문에서 국유경제단위 및 집체경제단위 노동자가 대폭 축소되고 기타경제단위 노동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90년대 중반이후 국유경제단위 직공수입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국유경제단위의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작지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철, 2002b). 따라서 기타경제단위 직공수입의 향후 지역간 도시불평등에 대한 역할을 감안할 경우 지역간 도시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국유경제단위와 기타경제단위, 그리고 집체경제단위와 기타경제단위 사이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가의 여부로 귀결된다.

■ 참고 문헌

1. 이종철, "중국농촌의 지역불평등의 원인분석," 『경제발전연구』, 6권 1호, 2000, pp. 203-221.
2. 이종철, "중국의 지역불평등 증대의 원인은 도·농격차의 확대인가?," 『경제논문집』, 제16호, 중앙대 경제연구소, 2001, pp. 211-226.
3. 이종철, "중국 도시불평등의 추세와 원인분석,"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2002a.
4. 이종철, "중국의 도시불평등: 성내 불평등과 성간불평등,"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2002b.
5.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各 年度.
6. 國家統計局城成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1990年 中國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資料』, 中國統計出版社, 1991.
7. 國家統計局城成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物價及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96.
8. 國家統計局城成市社會經濟調查總隊 編, 『中國價格及城鎮居民家庭收支調查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2000.
9. Aaberge, Rolf and Xuezheng Li, "The Trend in Urban Income Inequality in Two Chinese Provinces, 1986-9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3, No. 3, 1997, pp. 335-355.
10. Barro, Robert and Xavier Sala-i-Martin,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 Hill, 1995.
11. Bourguignon, F., "Decomposable Income Inequality Measures," *Econometrica*, 47, 1979, pp. 901-920.
12. Cowell, F. A., "On the Structure of Additive Inequality Measu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1980, pp. 521-531.
13. Cowell, F. A., "Inequality Decomposition: Three Bad Measures,"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40, 1988, pp. 309-12.
14. Fei, J. C. H., G. Ranis, and S. W. Y. Kuo,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2, 1978, pp. 17-53.
15. Fields, G. S., "Income Inequality in Urban Colombia: A Decomposition Analysi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5, 1979, pp. 327-341.
16. Chen, Jian and Belton M. Fleisher, "Regional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2, 1996, pp. 141-164.
17. Chen, Shaohua and Martin Ravallion, "Data in Transition: Assessing Rural Living Standards in Souther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 7, No. 1, 1996, pp. 23-56.
18. Cheng, Yuk-shing, "A Decomposition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of Chinese Rural Households," *China Economic Review*, Vol. 7, No. 2, 1996, pp. 155-167.
19. Coady, David and Wang Limin, "Equity, Efficiency, and Labor Market Reforms an Urban China: the Impact of Bonus Wages o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China Economic Review*, Vol. 11, 2000, pp. 213-231.
20. Denny, David L, "Provincial Income Differences Diminished in the Decade of Reform,"

- in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The Problems of Reforms, Modernization, and Interdependence*, 1991, pp.186-208.
21. Du, Jin, "Regional Inequality Variations in Post-Reform China: Sources of Instability and Future Prospects," Paper for International Workshop on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Political Stability, Hitotsubashi University, 1996.
22. Fleisher, Belton and Jian Chen, "The Coast-Noncoast Income Gap, Productivity, and Regional Economic Policy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5, No.2, 1997, pp.220-236.
23. Gustaffson, B. and Li Shi, "Types of Income and Inequality in China at the End of the 1980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3, No. 2, June 1997, pp.211-226.
24. Gustaffson, B. and Li Shi, "The Effects of Transi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China," *Economics of Transition*, Vol.9, No.3 2001a, pp.593-617.
25. Gustaffson, B. and Li Shi, "A More Unequal China? Aspects of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Equivalent Income," in Carl Riskin, Li Shi and Zhao Renwei, ed., *China's Retreat from Equality*, An East Gate Book, 2001b, pp.44-83.
26. Hare, Denise, "Rural Nonagricultural Activities and Their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Evidence from Farm Households in Souther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4, No.1, 1994, pp.59-82.
27. Jian, Tianlun, Jeffery D. Sachs and Andrew M. Warner, "Trends in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7, No.1, 1996, pp.1-21.
28. Kanbur, Ravi and Xiaobo Zhang, "Which Regional Inequality? The Evolution of Rural-Urban and Inland-Coastal Inequality in China from 1983 to 199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7, No.3, 1999, pp.686-701.
29. Khan, Azizur, Keith Griffin and Carl Riskin, "Income Distribution in Urban China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Reform and Global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2, 1999, pp.296-300.
30. Khan, Azizur and Carl Riskin, "Composition, Distribution and Growth of Household Income, 1988 to 1995," *China Quarterly*, 1998, pp.221-253.
31. Khan, Azizur, Keith Griffin, Carl Riskin and Renwei Zhao, "Household Income and Its Distribution in China," *China Quarterly*, 1992, pp.1029-1061.
32. Knight, John and Lina Song, "The Determinants of Urban Income Inequality in China",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3, 1991, pp.123-154.
33. Knight, John and Lina Song, "The Spatial Contribution to Income Inequality in Rural Chin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 1993, pp.195-213.
34. Knight, John, Li shi and Zhao Renwei, "A Spatial Analysis of Wages and Incomes in Urban China: Divergent Means, Convergent Inequality," in Carl Riskin, Li shi and Zhao Renwei, ed., *China's Retreat from Equality*, An East Gate Book, 2001, pp.133-166.
35. Lee, Jongchul,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Chin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20, No.2, 1995, pp.99-117.
36. Lee, Jongchul, "Changes in the Source of China's Regional Inequality," *China Economic Review*, Vol.11, No.2, 2000, pp.232-245.

37. Lyons, Thomas P., "Interprovincial Disparities in China: Output and Consumption, 1952-1987,"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9, No. 3, 1991, pp. 471-506.
38. Mookherjee, Dilip and Anthony Shorrocks,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Economic Journal*, Vol. 92, 1982, pp. 886-902.
39. Morduch, Jonathan and Terry Sicular, "Rethinking Inequality Decomposition with Evidence from Rural China,"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 636, HIID, Harvard University, May 1998a.
40. Morduch, Jonathan and Terry Sicular, "Politics, Growth, and Inequality in Rural China: Does it Pay to Join the Party?,"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 640, HIID, Harvard University, June 1998b.
41. Pyatt, G., C. Chen, and J. Fei, "The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 1980, pp. 451-425.
42. Raiser, Martin, "Subsidising Inequality: Economic Reforms, Fiscal Transfers and Convergence Across Chinese Provinces," Unpublished Discussion Paper,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7.
43. Ram, R.,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and Inter-Country Inequality," *Economics Letters*, 5, 1980, pp. 195-199.
44. Ram, R., "Composite Indices of Physical Quality of Life, Basic Needs Fulfilment, and Inco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 1982, pp. 227-47.
45. Ram R., "Interstate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Measurement, Modelling and Some Characterist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8, 1992, pp. 39-48.
46.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 "When Economic Reforms Faster than Statistical Reform: Measuring and Explaining Income Inequality in Rural Chin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1902, World Bank, March 1998.
47. Rozelle, Scott, "Rural Industrialization and Increasing Inequality: Emerging Pattern in China's Reforming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 1994, pp. 362-391.
48. Shorrocks, A., "The Class of Additively Decomposable Measures," *Econometrica* 48, 1980, pp. 613-625.
49. Shorrocks, A.,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982, pp. 193-211.
50. Shorrocks, A., "The Impact of Income Components on th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3, pp. 311-326.
51. Shorrocks, A.,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 *Econometrica* 52, 1984, pp. 1369-1385.
52. Theil, H. and C. Sorooshian, "Components of the Change in Regional Inequality," *Economics Letters*, 4, 1979, pp. 1991-1993.
53. Tsui, Kai-yuen, "China's Regional Inequality, 1952-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5, No. 1, 1991, pp. 1-21.
54. Tsui, Kai-yuan, "Decomposition of China's Regional Inequalit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7, No. 3, 1993, pp. 600-627.

55. Tsui, Kai-yuan, "Economic Reform and Interprovincial Inequalities in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0, No. 1, 1996, pp. 353-368.
56. Tsui, Kai-yuan, "Factor Decomposition of Chinese Rural Income Inequality: New Methodology, Empirical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No. 3, 1998a, pp. 502-528.
57. Tsui, Kai-yuan, "Trends and Inequalities of Rural Welfare in China: Evidence from Rural Households in Guangdong and Sichu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6, No. 4, 1998b, pp. 783-804.
58. Xiaobin, Simon Z., "Spatial Dispar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1953-92: A Comparative Stud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27, 1996, pp. 131-163.
59. Xu, Lixin and Heng-fu Zou, "Explaining the Changes of Income Distribution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11, 2000, pp. 149-170.
60. Xue, Jinjun and Deqiang Liu, "Urban-Rural Income Disparity and Its Significance in China," Paper for International Workshop on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Political Stability, Hitotsubashi University, 1996.
61. Yang, Dali, "Patterns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hina Quarterly*, 122, 1990, pp. 231-257.
62. Yang, Dennis, "Urban-biased Policies and Rising Income Inequality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2, 1999, pp. 306-310.
63. Yao, Yuodan and Weeks Melvyn, "Provincial Income Convergence in China, 1953-1997: A Panel Data Approach," DAE Working Papers, Dept. of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Nov. 2000.
64. Zhang, Zongyi, Liu Aying and Yao Shujie, Convergence of China's Regional Incomes 1952-1997, *China Economic Review* 12, 2001, pp. 243-258.

Trends and Sources of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in China

Jongchul Lee*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and source of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in China during the 1990s. We use official urban households income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Urban Households Survey Unit of the National Statistical Bureau of China.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in China increased during the 1990s. However, when we divide the 1990s into two periods, the first half of 1990s(1990-1995) and the second half of 1990s(1995-1999), we find that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90s has increased, but in the second half of 1990s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has not increase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ter-provincial urban inequality has worsened for all of the components of disposable income in the first half of 1990s. Compared to the first half of 1990s, however, the inter-provincial urban inequality has not worsened in the last half of 1990s except for the state-owned and collective-owned unit's wages and bonuses. We also find that the state-owned unit's wage and bonus as well as the transfer income played major role in explaining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The contribution to the inter-provincial urban income inequality from these three major sources became larger in the second half of 1990s than in the first half of 1990s.

Key Words: inter-provincial inequality,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